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특강 (독서)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문·예술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갈래를 일컫는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dramatic theatre)은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 재화한 것이다.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며, 배우는 인물을 재현한다. 드라마 연극이란 말에 는 이중의 재현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드라마 연극 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포 스투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 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하며,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양하는 특성을 지니는 일련의 다양한 연 극을 일컫는다.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 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 들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위계적 구조를 띤다. 드라마 연극에서 는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배우와 관객, 작품과 공연, 연극과 비연극 등의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어 그 위계질 서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그 중심이 작품에서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러한 경계가 ㉡희석된다. 가령 드라마 연극에서 관 객은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정 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고, 배우는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객석에 관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신이 연기해야 할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다. 이는 관객과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음 을 나타낸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 계선이 사라진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 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 다. 이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 의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 낸다. 관 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극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 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 을 보여 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기 어렵다. 이처럼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 터 해방되면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 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관

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자신 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는 연극 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포함된다.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한다. 가령 이것 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몸, 음 향, 조명 등의 다 양한 요소로 이동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 다.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 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들어 온다.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행위자로서 몸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치중한다.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 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으며,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 라고 했다.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며 하나 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는 우연성이 강조된다. 우연성의 증대는 공연 갈래로서 연 극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일회성,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 을 지향한 반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미완결 상태로 개방 되어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 연극에서의 사건성은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 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 해 봉사하던 배우의 몸,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의 요소 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 가 해체되고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이 복 원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연극이 새 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 나가고 있음을 ㉥

시사한다.

*미메시스: 그리스어로 '모방'이라는 뜻.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의 재현을 의미함.

*퍼포먼스: 광의로는 '실행(實行)'이란 뜻인데 협의로는 '연기, 연주'를 말함.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가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함.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토대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드라마 연극의 요소를 규명하고 있다.
- ② 드라마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근거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③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드라마 연극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여러 공연 사례로부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상보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극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연극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⑤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의해 기존과 달라진 연극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되는 경향은 연극에서 사건성이 강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드라마는 현실을 재현하며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속에 재현된 것을 다시 무대 위에 재현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라 플롯을 중시하는 드라마 연극에서는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한다.
- ④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이 공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 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연극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출을 통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인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현대 향락 사회의 일면을 보여 주는, 피나 바우쉬의 「콘택트호프」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춤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춤 동작은 일상의 동작, 제스처 등이 기이하게 섞인 것으로 즉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 같은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몸짓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끼게 만드는 낯선 경험을 선사한다. 간혹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하는데, 단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일 뿐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나) 「모스」는 여러 사람의 개인적인 추억과 회상을 기본으로 하는 짤막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각본이나 규칙이 없으며, 누구든 무대 위에 설 수 있고 관객이 될 수 있으며, 발표 순서 또한 사회자에 의해 제비뽑기로 결정된다.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에서 관객들은 작가이자 배우가 된다. 이 공연은 사건의 재현을 넘어 무한대의 텍스트가 창조되며 융합되고 또다시 해체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시간대로 관객을 안내하며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 ① (가)에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대사는 「콘택트호프」가 사건을 재현하는 드라마의 화법에서 벗어나 있음을 나타낸다.
- ② (나)에서 누구든 배우가 될 수 있고 관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스」가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 공연임을 나타낸다.
- ③ (가)의 '낯선 경험'과 (나)의 '새로운 체험'은 콘택트호프와 「모스」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한 사고를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④ (가)의 '즉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나)의 '각본이나 규칙이 없는 것'은 「콘택트호프」와 「모스」가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연임을 나타낸다.
- ⑤ (가)의 '춤 동작들'과 (나)의 '짤막한 이야기들'은 각각 「콘택트호프」와 「모스」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된 공연임을 나타낸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연으로서의 연극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② 일련의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③ 매 공연이 동일한 재현의 반복적 시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④ 배우가 자기 몸의 고유한 움직임보다 배역의 수행을 중시한다.
- ⑤ 관객의 체험보다 감상이 공연의 의미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5.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브레히트는 관객이 현실의 재현에 충실한 사실주의적 연극 공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서사극으로 지칭되는 드라마를 창작하고 연극으로 연출했다. 그는 관객이 공연장에서 수동적인 관람자로 머물면 일상으로 되돌아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관객이 일상으로 되돌아가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에서부터 몰입을 방해할 필요가 있었다. 서사극은 기존의 연극처럼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연극에 몰입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 몰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이성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 서사극은 연극이 재현하는 현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 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서사극과 달리 관객이 드라마 연극을 관람할 때와 같이 극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기가 어렵다.
- ② 서사극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연극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부정한다.
- ③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 모두 관객과 무대 위의 사건 사이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 ④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 모두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는 위계 구조를 바탕으로 공연된다.
- ⑤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문·예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철학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자유 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다.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려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 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은 차등의 원칙인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maximin rule)이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맥시민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맥시맥스 원리(maximax rule)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킨은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 매킨타이어는 롤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며,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국가가 정해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③ 국가는 개인의 법적 권리 문제에 개입하여 해당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
- ④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그것이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도 바꿀 수 없다.
- ⑤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롤스에 따르면,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법과 제도가 절차적 공정성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겠군.
- ② 롤스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닌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 ③ 드워킨에 따르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군.
- ④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정의에 대해 규정할 때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나 관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겠군.
- 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한 공동체 내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며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은 정의와 매개되어 있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다. 이 중 복도 쪽에 앉아 있는 어떤 학생이 판서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창가의 커튼을 쳐 달라고 말했다. 창가 쪽에 있는 어떤 학생은 커튼을 치면 햇볕을 쬐 수 없다며 커튼을 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교실 내 자리 결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면 롤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할까?

- ① 학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하여 학생 30명의 자리를 다시 정한다.
- ② 30명의 학생 모두에게 어떤 자리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한다.
- ③ 자리 선정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학생 모두가 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정한다.
- ④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검토한 뒤 갈등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합의한다.
- 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나쁜 조건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하고 그 자리에 앉는 학생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한다.

4.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

갑국에서 '계층 1', '계층 2', '계층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1/3이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때에 '계층 1', '계층 2', '계층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몫은 각각 3, 8, 14이다. 갑국이 이러한 불평등 분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각 결정에 따른 '계층 1', '계층 2', '계층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몫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결정 1	결정 2	결정 3
계층 1	-2	+2	+3
계층 2	0	-1	0
계층 3	+2	-1	-3

—<보 기 2>—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갑국은 (㉠)을/를,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갑국은 (㉡)을/를 따를 것이다. 만일 갑국이 (㉢)을/를 따른다면 (㉣)을/를 따를 때보다 갑국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 것이다.

- | | ㉠ | ㉡ | ㉢ |
|--------|------|-----|---|
| ① 결정 1 | 결정 2 | 커질 | |
| ② 결정 2 | 결정 3 | 커질 | |
| ③ 결정 3 | 결정 1 | 커질 | |
| ④ 결정 2 | 결정 3 | 작아질 | |
| ⑤ 결정 3 | 결정 1 | 작아질 | |

5.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축(構築)된다.
- ② 결성(結成)된다.
- ③ 완비(完備)된다.
- ④ 설립(設立)된다.
- ⑤ 결정(決定)된다.

[인문·예술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카메라가 등장하고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회화의 목적도 모사,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물체의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 회화가 퇴색하고 추상 회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1920~1930년대의 초현실주의, 1950년대의 팝 아트 역시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 회화를 극복해 낸 실천적 미술 운동으로 평가되며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 회화나 모더니즘 예술보다 정교하게 대상을 묘사해 내는 구상 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일부 작가들도 ㉠추상 회화는 작가들의 사유 놀이에 불과하다며 구상 회화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포토리얼리즘은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예술 경향으로, 구상 회화에 대한 지향을 보여 준다.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상주의자 모네가 “나는 눈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한 데 반해,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실재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자동차, 낚시 판매키, 구두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물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클로스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머리카락, 모공, 숨털, 미세한 주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사람의 얼굴을 낯선 세계의 사물처럼 묘사하였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머리(head)’라고 부르고, ㉢사진은 한 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 작품이냐는 반문에 대해,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화가가 사진을 참조한다고 할지라도 회화의 선, 공간, 움직임 등에 대한 분석과 표현은 화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화가의 창조적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인 블랙웰은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에스테스는 ㉤“그림을 그릴 때, 가 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

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에스테스는 전통 회화의 리얼리즘에서 추구하였던 원근법을 활용하지만 각도를 달리해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참조하여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회화에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 냈다.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화폭에 담아내어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와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하였지만 그들이 과학 기술 문명이나 현대 산업 사회를 찬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포토 리얼리즘 작품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다.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여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인데,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기록으로서 오래도록 현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1.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팝 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 회화의 한 부류이다.
- ②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인상주의자들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작품을 창작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 ③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위해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 ④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⑤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작가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반영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한 일부 예술가들의 회의를 보여 준다.
- ② ㉡은 신체의 일부를 물체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음을 말해 준다.
- ③ ㉢은 사진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드러낸다.
- ④ ㉣은 자신의 그림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⑤ ㉣은 회화에 비해 사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에서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물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물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는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물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물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물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현대에는 시물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① 플라톤의 시각에서, 실재와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진 회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 ② 플라톤의 시각에서, 하이퍼리얼리티를 지니는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세계의 원형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 ③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사진이 재현한 대상을 다시 재현한 파생 실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은 사진과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원본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⑤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포토 리얼리스트들이 프로젝터로 사진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하는 작업은 시물라시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다음은 ‘수행 과제’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행 과제: 포토리얼리즘의 경향성을 반영한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에 대해 소개하시오.



제가 그린 이 그림은 포토리얼리즘 작가 중 한 명인 에스테스의 작가 의식과 작법을 좇아 그린 것입니다. ○○ 빌딩 앞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고 이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캔버스에 투사하여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유화 물감으로 색을 칠하여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사진 같아 보이지만 빌딩 앞의 도로의 꺾임을 보면 현실을 변형하여 표현한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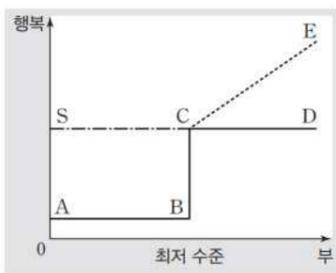
- ①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스케치를 함으로써 빌딩 앞의 정경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 낼 수 있었던 것이겠군.
- ② 빌딩 앞의 도로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이 각도를 달리 하여 찍은 사진들을 동시에 활용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한 화폭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현실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그림 그리는데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일상의 풍경을 정교하게 담아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실존하는 장소를 그려 낸 것이겠군.
- ⑤ 일상의 도시 공간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변형하여 묘사함으로써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군.

[인문·예술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하염없이 투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실각한 정치가도 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빛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즉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았다.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므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무감각하지 않는 한, 또는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의 크기를, 세로축은 행복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점 A부터 점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 여기에서 꺾은선 그래프 ABCD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꺾은선 그래프 ABCE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해당한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 CE는 증가의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식사도, 아름다운 의복도, 훌륭한 저택도 실제로 가져 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을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을 번거롭게 만든다.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부와 행복의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과 같이 선분 CD로 나타나게 된다. 선분 CE는 연약한 사람의 '환상'에 따른 것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지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와 점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두 꺾은선 그래프에서 선분 BC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 준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SCD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심(不動心)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에는 동요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빈곤을 피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면이나 절약 등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 우연한 사건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지, 정체하는지 또는 쇠퇴하는지가 포함된다.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고용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 수준 이상의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거꾸로 경제가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최저 수준의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애덤 스미스는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1. 밑글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 ②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 ③ '실각한 정치가'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활과 함께 세상으로부터의 '경멸과 무시' 때문에 비참해진다.
- 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감할 수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혜로운 사람'이 점 C와 점 D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거야.
- ② '지혜로운 사람'은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 ③ '연약한 사람'과 '현자'가 점 C 이상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차이가 없을 거야.
- ④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서는 그의 '환상' 때문에 선분 CE가 나타날 거야.
- ⑤ '현자'는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도 점 C 이상 일 때보다 행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 거야.

3.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굶주림에 지쳐 마을을 떠돌던 ㉠은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 ㉡는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이때 ㉠을 목격한 부유한 상인 ㉢는 보상금을 바라며 ㉠을 붙잡아 ㉡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에게 주었다.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뀐 ㉠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 ① ㉠과 ㉡가 만났을 때 둘 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 ② ㉡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로, ㉠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뀌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 ④ ㉠이 ㉠을 붙잡아 ㉡에게 데려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 ⑤ ㉠은 ㉡의 집을 떠난 후 돈을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윗글에 따를 때, 경제 발전에 대해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 ② '빈곤 상태'를 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③ '최저 수준'의 부를 얻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④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의 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이러한 기만'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부와 행복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다음 글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만'이다. 맨 처음에 인류를 고무시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명·개량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명·개량은 인간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지구의 전 표면을 변화시켰고, 자연 그대로의 거친 삼림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원으로 바꾸었다. 토지는 이러한 인류의 노동에 의해 그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 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 ②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가 옳다는 것
- ③ '세상'이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
- ④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의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 ⑤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예상하는 것

6.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그 형성 과정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학생: '부동심(不動心)'은 '부동(不動)'과 '심(心)'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불(不)'과 '동심(動心)'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선생님: '부동심'에서 '불'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 '동'인지 '동심'인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미상 '불'이 '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 단어는 '불'과 '동'이 결합한 후에 '부동'과 '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동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동'과 '심'이 결합한 후에 '불'과 '동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는 자리가 불충분(不充分)하다.
- ② 일반 소금은 물에 타 불순물(不純物)을 가라앉힌 후 사용한다.
- ③ 그곳은 물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不適合)하였다.
- ④ 발표자의 발음이 부정확(不正確)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 ⑤ 이번 수정안도 불만족(不滿足)스러운 데가 없지 않으나 이전 것보다는 낫다.

[인문·예술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의 토지 제도는 신라의 국가 권력이 붕괴되는 가운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는 한편, 이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조권을 부여했던 토지 제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수조권의 권한을 넘어 토지 자체를 매매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세습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조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크게 부족해졌다.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여 토지를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는데, ㉠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다주(一田多主)에 의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색을 비롯한 이승인, 권근 등은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적(田籍)을 기준으로 그 선후를 따져 사전의 불법적인 침탈 여부를 판단한 후 일전일주(一田一主)의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보다 고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들과 달리 ㉡사전 혁파론자들은 사전의 불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조준과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이색 등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게 ‘전객(佃客)’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所耕田)’으로 규정하여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개별 전객 농가를 ‘호(戶)’로 파악하여 국역 부담과 조세 수취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전 혁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소경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사전 혁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폐단을 야기하는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사전을 혁파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당시 고려의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인 동시에, 고대 중국 하·상·주 시대의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며,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들 중 유배의 경험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잘 알았던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저술한 『조선경국전』에 드러나 있다.

그런데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 제도, 재정 제도, 지방 제도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혁파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 기대된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 1391년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전법(科田法)’이 제정되었다.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들에게 품계에 따라 수조권이 부여된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frac{1}{10}$ 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홀양전은 일부 세습되기도 하였다. 과전법의 성립은 사전의 혁파를 넘어 고려 왕조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려 시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방 호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대조하여 각각의 입장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고려 시대에 시행된 토지 제도의 특징을 고찰하고 토지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고려 시대의 토지 거래 사례들을 비교하여 토지 제도가 토지 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고 있다.

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전법에서는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켰다.
- ② 사전 혁파론자들은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고자 하였다.
- ③ 고려 왕조는 관리로 등용된 호족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조권을 부여하였다.
- ④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⑤ 과전법에서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홀양전은 일부 세습되기도 하였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정도전'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대 중국에서는 토지가 관에 있고 이를 백성에게 주었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관에서 준 토지였다.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 역시 부유하였다.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부자는 밭두둑이 잇닿을 만큼 토지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부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니, 일 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하여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였다.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하지 않고 가난한 농민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그 이득을 얻지 못하니 백성은 더욱 곤궁해지고 국가는 더욱 가난해졌다.

- 정도전, 『조선경국전』

- ①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했겠군.
- ②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가는 것을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했겠군.
- ③ 가난한 사람이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는 것을 토지 제도가 무너져 초래되는 폐단으로 생각했겠군.
- ④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을 국가가 관리들로부터 조세를 직접 징수해야 하는 이유로 생각했겠군.
- ⑤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이득을 얻지 못해 국가는 더욱 가난해졌다는 것을 토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생각했겠군.

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전의 불법적인 운영을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
- ② ㉡은 전적의 기록을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였다.
- ④ ㉡은 ㉠과 달리,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불법적인 수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②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 ③ 지방 호족들의 토지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 ④ 수조권을 부여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 ⑤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문·예술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가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음향은 영화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영화의 음향은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여러 요소들과 관계하며 다양한 차원을 구축한다. 영화감독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원*에 충실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충실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만약 개가 짖는 영상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제시된다면 그 음향은 충실도가 충족된 것이지만, 대신 고양이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면 음향과 영상 사이에는 불일치의 관계가 생기므로 충실도가 결여된 것이다. 음향은 충실도의 충족여부에 따라 충실한 음향과 불충실한 음향으로 나뉘는데, 충실도의 판단에서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개 짖는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내어 제시하더라도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충실도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즉 충실도는 녹음의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음향의 음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관객이 영상을 보며 기대하는 소리가 영화에서 음향으로 나올 때, 충실도가 충족된다. 때로는 영화감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결여시키기도 한다. 접시가 떨어질 때 심벌즈 소리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부딪칠 때 북소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하여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다. 또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 매우 작은 소리를 의도적으로 크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음량의 변화를 통해 충실도를 결여시킴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할 수 있다.

음향의 음원은 작품 줄거리의 안과 밖, 화면의 안과 밖 등 여러 공간에 위치하며, 음원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작품의 줄거리 안의 인물이나 대상이 음원인 음향을 내재 음향이라고 하고, 음원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음향을 외재 음향이라고 한다.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내재 음향, 영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배경 음악이나 외부 해설자의 목소리가 외재 음향의 예이다. 내재 음향은 관객이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적 내재 음향과 외적 내재 음향으로 구분된다. 극중 인물의 내면이 음향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음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음향을 내적 내재 음향이라 한다. 이와 달리 관객이 장면 내에서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음향을 외적 내재 음향이라 한다. 한편 음향은 음원이 화면 내에 있는 내화면 음향과 화면 밖에 있는 외화면 음향으로 나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오는 사람과 화면에 나오지 않는 옆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말소리는 내화면 음향이고 옆 사람의 말소리는 외화면 음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은 자신이 가진 관습적인 기대에 따라 음향의 종류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불타는 안장」에서 주인공이 초원을 달리는 영상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올 때, 관객은 이를 배경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뒤 ㉠초원에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관객이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감독이 의도적으로 장면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외부 해설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말을 걸고, 인물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음향들이 상호 작용하게 만들면, 이러한 상호 작용은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는다.

음향은 여러 방식을 통해 영상과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는다.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동조화라고 하고, 음향의 발생 시간이 영상의 시간과 동일한 음향을 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과 영상의 시간은 동일하므로 편집 과정에서 동조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때로는 영상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과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음향을 치환 내재 음향 또는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비동시 음향으로 회상 음향, 상상 음향, 사이 음향이 있다. 회상 음향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음향이 현재의 영상에 들리는 것이고, 상상 음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음향이 현재의 영상에 들리는 것이다. 사이 음향은 한 장면의 음향이 다른 장면 위로 잠시 이어지는 것으로 앞 장면의 음향이 다음 장면 위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다음 장면의 음향이 앞 장면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비동시 음향들을 활용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감독은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음향과 관련을 맺는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유발하고, 관객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음향들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의미를 해석한다. 관객들은 음향과 여러 요소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영화를 더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음원: 소리가 나오는 근원.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향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음향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지어 음향을 분류하고 있다.
- ③ 관객이 음향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음향이 가진 의의와 가치를 드러내면서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영화감독이 여러 음향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의 충실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관객의 경험이 반영된다.
- ② 영상과 음향이 함께 제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조화가 이루어진다.
- ③ 녹음의 질은 음향의 충실도 충족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외적 내재 음향은 내적 내재 음향과 달리 장면 내에서 물리적 음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음향이 아니더라도 충실한 음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의 배경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타낼 수 있겠군.
- ② 음향이 시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겠군.
- ③ 관객들이 음향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겠군.
- ④ 관객들로 하여금 음향이 음원에 충실한지를 파악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군.
- ⑤ 관객들이 인물의 마음속과 외부 세계 중 음원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겠군.

4.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영화 「탈옥수」에서는 다양한 음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사형수의 영상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미래의 시점에서 영상에 나오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논평하는 사형수의 목소리가 음향으로 제시된다. 이 치환 내재 음향은 인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탈출 장면에서도 그의 논평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영상이 너무 어두워 관객들이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관객들은 그의 논평을 통해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인물이 탈출을 준비하면서 내는 천을 찢는 소리, 지푸라기가 훑날리는 소리 등을 의도적으로 실제 소리보다 크게 나타내어 관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상황의 긴박감을 조성한다. 그 후, 그가 탈출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감독은 기차의 소음을 제거하여 관객들이 인물의 발소리와 총소리에만 집중하게 한다.

- ① 관객들은 탈출 장면의 외화면 음향을 통해 현재 벌어지는 사건을 알게 되겠군.
- ② 관객들은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이 상호 작용하는 탈출 계획 장면에서 생소함을 느끼겠군.
- ③ 사형수의 논평이 내적 내재 음향인지 외적 내재 음향인지에 대해 관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군.
- ④ 감독은 탈출 준비 장면에서 음량의 변화를 활용하여 음향의 충실도를 결여시킴으로써 긴박감을 조성하려 한 것이겠군.

5. <보기>는 읽글을 읽은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를 분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부장: 지난 회의에서 이번에 만들 영화에 다양한 비동시 음향을 사용하기로 했지. 오늘은 비동시 음향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 보자.

부원1: 자동차 운행 장면에서 ㉠사고로 인한 충돌 소리가 미리 들리도록 하고, 한동안 운행 영상을 제시한 뒤 사고가 나는 영상을 제시하면 사고 장면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원2: 좋은 생각이야. 나는 젊은 주인공이 편지를 읽는 영상을 제시하고, 장면이 여러 번 바뀌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늙은 주인공의 모습과 함께 ㉡주인공이 예전에 편지를 읽었던 음향을 제시하면 편지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원3: 그래. 주인공의 독백 장면에서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넘어갈 때는 ㉢독백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음향이 대화 영상 위로 잠시 이어지게 하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

부장: 좋은 생각이다. 비동시 음향을 적절히 사용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 보자.

	회상 음향	상상 음향	사이 음향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인문·예술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주자학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로 작용했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다.

17세기 초부터 조선 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은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 달랐고,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다.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되었다.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이(天災地異), 즉 재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주자학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재이 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즉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재이 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이익은 재이 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자학적 인간관이 재이 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재이 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재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학적 관점은 약화되는 것이다. 또한 최한기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한 것이다.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데,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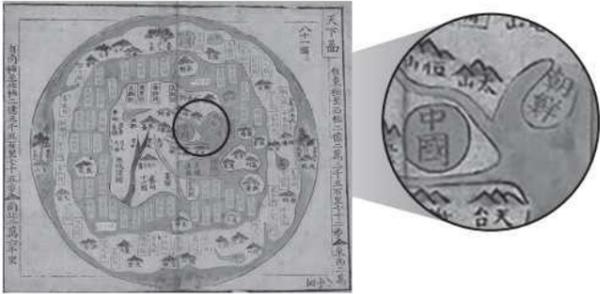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두려고 노력했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한기는 자연을 인식할 때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② 주자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 이해하였다.
- ③ 주자학적 질서를 따랐던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주자학적 원리에 의한 학문관을 지니고 있던 지식인의 일부는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서구의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학문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 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지도는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의 세계 지도 형식을 빌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인 '천하도'이다.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지도의 내용은 발음이 안 되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으로 구성하였다.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대륙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다. 물론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천하도'가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명인 '中國'은 원으로 크게 강조하여 표현하였지만 나머지 주변에 배치된 나라들의 이름은 직사각형의 형태 안에 표기했다.

- ① 세계 지도를 원형으로 제작했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 새롭게 유입된 서구의 지식 중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중국의 크기가 기존의 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는 것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이지만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대 서구적 세계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지도에서 일부 나라들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땅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도의 형식은 근대 서양의 지도 제작 형식을 빌렸다는 것에서 근대 서구의 문화가 수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중국의 지명은 원으로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의 지명은 직사각형의 형태 안에 표기했다는 것에서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3. ㉠과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재상이 정광필에게 농담 삼아 말하기를, “하늘에 우리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배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올라다가 스스로 그칠 것이니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우리가 울리는 것을 나라가 어찌하겠는가.” 하니, 정광필이 웃으며 천천히 이르기를, “배가 병이 나면 우는 것이지만 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병이 생기게 한 것은 사람이니 사람에게 어찌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 ① ㉠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올라다가 스스로 그치게 하는 내재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역할이나 임무와 관련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겠군.
- ④ ㉡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배가 병이 나서 우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병이 생기게 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⑤ ㉠과 ㉡의 입장에서는 모두 우리를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울리는 현상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겠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가 맹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② 기존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인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③ 자연관의 변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리시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④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⑤ 자연에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문·예술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진보 사관이 나타나기 전 고대 중국과 그리스·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鑑戒) 사관, 상고 사관, 순환 사관이었다. 감계 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킨다. 상고 사관은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아득한 고대에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 사관은 마치 자연 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관점이다. 이 세 가지의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이상적 기준을 고대에서 찾고, 선대의 원형과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17세기 유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17~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던 '근대인들이' 학식 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진보 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했던 근대인들은,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과 방법론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와 같이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18세기 들어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 시론』에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했다. 마치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육체적 발전에 적절한 교육이 더해지면 정신적, 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진

보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낙관론은 과학과 이성의 힘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보 사관의 과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 사관의 절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조는 근대의 실증주의이다. 콩트는 『실증 정치학 체계』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에 기초해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사제와 법률가가 득세한 형이상학적 단계인 중세로, 최종적으로는 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삼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진보 사관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연 과학을 거쳐 발전하게 된 사회 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19세기 진보 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달리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하는, 좀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헤겔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보 사관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 이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양하며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또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하고, 결국 진보의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의 진보가 완성될 것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진보 사관은 20세기 들어,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급속히 약화되었다. 20세기의 지식인들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에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살육과 전체주의적 독재가 횡행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계 대전과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황금시대: 사회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시대.

*디스토피아: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비교한 후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역사의 진보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열거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 ④ 진보 사관의 관점에서 전통적 역사관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⑤ 전통적 역사관을 소개한 후, 진보 사관의 발생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진보 사관이 형성되지 않았다.
- ②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 ③ 콩트는 사회 과학을, 실증적 단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마르크스는 계급 간의 갈등을 근거로 삼아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하였다.
- ⑤ 20세기에 있었던 세계 대전은 진보 사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역사의 흐름을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이해한다.
- ② ㉠은 ㉡과 달리 대립된 세력 간의 투쟁이 있어야만 역사가 발전한다고 인식한다.
- ③ ㉡은 ㉠과 달리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의 공포를 역사 발전의 증거로 간주한다.
- ④ ㉡은 ㉠과 달리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역사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 ⑤ ㉡은 ㉠과 달리 역사가 형이상학적 차원이 아닌 물리적 차원에서만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4. [A]에 제시된 역사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관	관련 서술
①	감계사관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본받아야 할 선한 일, 경계해야 할 악한 일'을 다루고자 한다고 그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감계사관	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역사서를 통해 국가가 모방할 것은 택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	상고사관	공자는 『논어』에서 초기 고대 국가였던 하나라와 은나라를 이상 국가로 보고 이 두 나라를 본받고자 했던 주나라의 주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④	상고사관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하여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파국을 겪고는 다시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⑤	순환사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의 정치 체제의 역사는 예외 없이 '왕정 - 참주정 - 과두정 - 민주정 - 중우정'의 단계를 반복한다고 언급했다.

5.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에서 기성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대개 역사는 발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은 가혹한 식민 통치와 내전을 통해 생명의 위협과 극도의 가난을 경험했으며,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높은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은 이러한 인식에 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역사가 꼭 발전한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청년들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 성장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콩트가 주장했던 실증적 단계라고 인식하겠군.
- ② 청년들은 민주화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역사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헤겔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기성세대는 ○○국이 극도의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선진 국가로 성장한 것을, 전통적 역사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인식하겠군.
- ④ 기성세대는 식민 통치와 내전 시기에 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현재의 상태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역사의 완성 단계로 인식하겠군.
- ⑤ 기성세대와 청년들은 모두 인류의 발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콩도르세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겠군.

6.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누나는 나를 친구 살아 이야기하곤 하였다.
- ② ㉡: 다시 여겨 살펴보니 쓰러진 사람은 그가 분명했다.
- ③ ㉢: 김 감독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섰다.
- ④ ㉣: 나는 기회를 보아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 ⑤ ㉤: 그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그의 말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인문·예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연속적인 분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철은 철 원자들로 분해가 되고, 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다시 분해되고,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초에 형성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관점을 활용해 물질의 구성에 대해 연구해 왔다.

물질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존재론적 환원은 다양한 수준의 물질이 갖는 '부분-전체' 관계에서 전체의 속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과학 연구에서는 존재론적 환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존재론적 환원은 사람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원론과 유물론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원론은 정신적 존재는 독자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원론은 오랫동안 정신적 존재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유물론에서는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물론의 입장과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 정신적 존재의 속성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속성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믿는 입장과,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지만 우리 두뇌와 같은 특정한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추론 능력과 같은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존재론적 환원을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존재론적 환원을 오직 존재자의 수준에서만 수용하는 것이다. 이 중 후자는 특정한 물질의 경우 환원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자와 물리학자는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이 궁극적으로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보다 미세한 물질들로 환원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모든 화학적 용매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화학자들은 특수한 종류의 물리계가 화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등장하는 '창발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가령 비평형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조절성'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 주장을 하는 화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화학자들은 전자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다.

물리적 세계의 물질들이 기본 입자들로 환원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존재론적 환원은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세계 전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염기의 배열 순서를 읽어 내면, 인간의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규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개체주의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닌 속성들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질과 부분들의 속성은 상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들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분들의 속성들의 합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과론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부분의 속성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속성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 역학 입장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이들은 미시 세계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의 상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섞여 있는 중첩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의 개별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존재자: 인간과 사물 등을, 이것들의 있음에만 주목하면서 무차별하게 총칭할 때 사용되는 말.

*비평형 상태: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상태.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재론적 환원의 이론이 변화한 과정을 서술하며 존재론적 환원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②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존재론적 환원에 대한 반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존재론적 환원의 이론과 관련된 전제를 제시하고 존재론적 환원이 수용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환원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의 속성을 분류하며 존재론적 환원이 적용되는 다양한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환원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며 존재론적 환원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2. ㉠과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수소와 질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인 ㉠암모니아 냄새는 수소나 질소에는 존재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것으로, 상온에서 질소와 수소가 직접 반응해야만 나타나는 속성이다.
-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회로망을 구성하고 있다. 사람이 학습을 하면 이 회로망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 ① ㉠의 입장에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가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② ㉠가 화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 나타나는 속성이라면, ㉡의 입장에서 ㉠가 '창발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비평형 상태에서의 '자기 조절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겠군.
- ③ ㉠가 지니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의 입장과 ㉡의 입장에서 모두 수소와 질소로 환원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의 입장과 달리 ㉡의 입장에서, ㉠가 수소나 질소에 존재하는 물리적 속성이며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⑤ ㉠의 입장에서 ㉢가 ㉡로 환원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 입장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이 ㉢로 환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3. [A]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염색체들의 기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면 그것들이 인간의 다양한 형질과 상호 작용하며 환원이 가능하다고 하겠군.
- ② 인과론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다양한 형질과 염색체 염기의 배열 순서 간에 인과적 관계가 없으면 둘 사이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겠군.
- ③ 인과론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요소가 염기의 배열 순서로 환원되는 경험적 증거가 많다면 인과적 관계와 상관없이 환원이 가능하다고 하겠군.
- ④ 양자 역학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중첩 상태를 근거로 기본 요소들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군.
- ⑤ 양자 역학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미시 세계에서는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들을 염기의 배열 순서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군.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예술은 물질 스스로 만들어 낸 현상이 아니라 창작자의 정신적 활동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공기가 지닌 속성으로부터 발현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 예술과 소리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는 물리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만 가능하다. 또한 ㉣ 음악에서 작곡가의 의도와 지휘자의 성향, 악기의 사용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배제하고 각 악기들이 만들어 내는 조화로움을 다룰 수는 없다. 인간이 왜 굳이 그러한 물리적 구성의 조합을 만들어 내었는가라는 측면에서 ㉤ 음악을 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 ① ㉠: 물질 이외에 다른 종류의 것이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환원의 관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 예술의 내용이 갖는 속성이 예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물리적 구성이라는 속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 악기 소리를 사람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 존재로 인식하다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원론의 관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물질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물론적 입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 정신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환원되기 어렵다고 여기는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인문·예술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는 도시 국가 중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주축이 되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전성기를 맞았다. 이때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건축물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졌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언덕 위 성채를 가리키는 말이다.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대규모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 고전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세워졌다.

신전은 숭배 의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석조 신전들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신전은 사각형 형태의 본체 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다수의 기둥인 열주가 ㉡돌려싼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옆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기단, 주추, 주신, 주두와 같은 기둥의 각 부분과 엔테블러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인 주범(柱範)이 만들어졌다. 주범은 기둥과 엔테블러처의 결합에서 구조상·장식상의 일정한 기준을 뜻하는데, 기본적인 주범은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으로 아케익기에 나타났으며 코린토스식은 아케익기 이후인 고전기에 ㉤등장했다.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 주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기둥의 머리 부분, 즉 주두 장식이지만, 그리스 건축 주범의 핵심은 주두 장식만이 아니라 기둥과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의 조합 방식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기단 위에 주추 없이 기둥을 세운다. 주신(기둥 몸체)의 세로 홈은 날카롭고, 주두는 사각형의 석판과 방석 모양의 구조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다. 이 주범은 기원전 6세기 초부터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작달막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변화했다. 도리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꼽힌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은 페르시아 전쟁 후 진행된 아크로폴리스 재건 사업의 핵심이었다. 흔히 엔타시스(entasis)라고 불리는 배흘림기둥* 양식은 한 세기 전부터 도리스식 건축에서 사용되었으나 이 신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었다. 기둥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 중앙을 향해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기단 역시 양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미세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신전은 외부의 열주에 도리스식 주범을 사용하여 도리스식 신전의 걸작으로 꼽히지만, 셀라*의 외벽 상부 프리즈*와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꾸며졌다.

이오니아식 주범에서 주두는 양쪽에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이 달려 있으며, 프리즈에 길게 연속된 부조가 배치된 경

우가 많다. 기둥 몸체의 세로 홈 또한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며 도리스식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 기둥이 가늘어 보인다. 이 주범이 도리스식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오니아식 주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에레크테이온 신전이다.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과 영웅들에게 봉헌된 신전으로, 여러 개의 셀라가 합쳐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는 유려한 형태의 이오니아식 열주로 장식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쪽 현관을 떠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카리아티드*로 유명하다.

코린토스식 주범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칸서스 잎사귀와 팔메트*, 소용돌이 장식 등이 복잡하게 결합된 주두 모양이다. 그 밖에도 전반적인 조합에서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장대하며 복잡하다. 이 주두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여 로마 시대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아테네에서 코린토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을 수 있는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은 시기적으로 고전기 이후인 헬레니즘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착공될 당시에는 도리스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가 재개되면서 코린토스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2세기 경이기 때문이다.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서기 2세기 로마 시대에 기둥 높이가 약 17미터에 이르는, 측면에 두 줄, 앞뒷면에 세 줄의 열주가 둘러싼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로 완공되었다. 코린토스식 주범은 고전기에 등장하였으나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하게 되었는데, 코린토스식 주범이 보여 주는 크고 화려함은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던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엔테블러처(entablature): 서양 고전 건축에서 기둥 바로 위쪽의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평 요소들. 아키투레이브와 프리즈, 코니스 등으로 구성됨.

*배흘림기둥: 건물의 조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둥 중간 부분의 배가 약간 부르도록 한 건축 양식. 그리스·로마 고전 건축의 외벽면 기둥에 사용함.

*셀라(cella): 고대 그리스·로마 신전의 안쪽에 신상을 안치한 방.

*프리즈(frieze): 서양 고전 건축에서 기둥머리가 받치고 있는 세 부분 중 아키투레이브와 코니스 사이의 수평단. 연속적인 부조로 장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건물 내외부, 가구 등에 사용되는 좁고 긴 수평 장식띠를 가리키기도 함.

*카리아티드(caryatid):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에서 기둥으로 사용된 여인상.

*팔메트(palmette): 종려 잎을 부채꼴로 편 것 같은 식물 문양.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스 건축의 주범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밝힌 후 그러한 변화가 지닌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② 그리스 건축의 주범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후 각 주범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③ 그리스 건축이 추구한 예술적 지향에 대해 설명한 후 그러한 지향이 그리스 건축의 주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그리스 건축의 주범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후 그 변화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그리스 건축에서 주범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언급한 후 주범의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범이 지닌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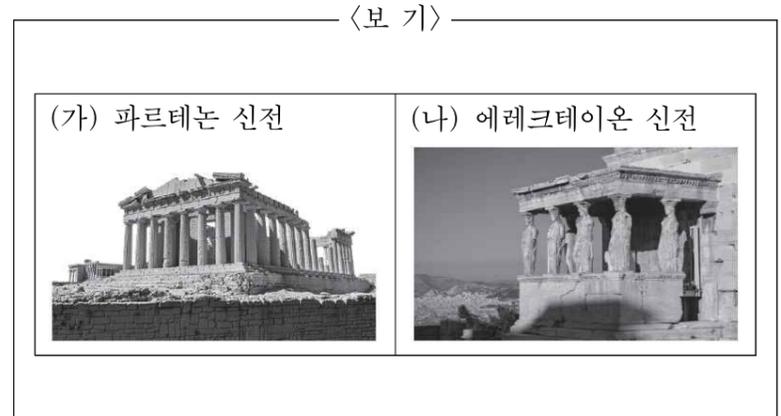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파괴된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사업으로 고전기 대표 건축물이 탄생했다.
- ② 그리스 신전의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기둥의 각 부분과 기둥 위쪽 부분의 결합 형태이다.
- ③ 도리스식 주범, 이오니아식 주범, 코린토스식 주범은 각각 아케익기,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났다.
- ④ 도리스식 주범, 이오니아식 주범, 코린토스식 주범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여 신전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 ⑤ 코린토스식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은 도리스식 주범이나 이오니아식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보다 화려하였다.

3.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주범에서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은 날카로운 데 비해, ㉡의 주범에서는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 ② ㉠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의 기둥이 ㉡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의 기둥보다 굵어 보인다.
- ③ ㉠의 주범에 비해 작달막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던 ㉡의 주범은 나중에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변화한다.
- ④ ㉡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은 ㉠의 주범을 이용한 것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⑤ ㉠과 ㉡의 주범은 모두 기둥의 각 부분과 기둥 위에 얹혀 있는 엔테블러처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구조상·장식상의 일정한 기준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춧돌 없이 기단 위에 기둥을 바로 세웠다.
- ② (가)의 주두는 사각형의 석판과 방석 모양의 구조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다.
- ③ (나)의 엔테블러처의 프리즈에는 길게 연속된 부조가 배치되어 있다.
- ④ (나)는 엔타시스 양식을 이용한 여러 개의 카리아티드가 기둥 역할을 한다.
- ⑤ (가)의 셀라의 후실 기둥과 (나)의 북쪽 현관, 동쪽 외부에는 같은 방식의 주범이 적용되었다.

5.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렇게 큰일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다.
- ② ㉡: 그 제품을 둘러싼 두 회사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 ③ ㉢: 그녀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무대 위로 등장했다.
- ④ ㉣: 비가 왔지만 나는 평소의 완만한 보행을 유지하면서 산을 내려왔다.
- ⑤ ㉤: 그는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랐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인문·예술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사물의 본질 또는 실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나 실재,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니체는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로,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온 신경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본 뒤,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미지를 하나의 음성, 즉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두 번째 메타포인데, 우리가 그 이미지를 '빨강'이라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영역들, 즉 신경 자극과 이미지,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임의로 옮겨 가는 데서 성립한다. 즉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나무, 꽃, 색깔, 모양 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본질들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니체는 자의적으로 신경 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되는 메타포를 통해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들과 전혀 다르지만, 나뭇잎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차이들을 임의로 망각하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함, 진실성 등 흔히 쓰는 개념들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 정직함, 진실성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개념을 통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니체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경계하였다.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드러낸다.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이 메타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모든 인간은 특수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삶에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해석적 진리라고 하였다. 니체가 말한 유용성이란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삶의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때의 진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을 추구하고,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과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관점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사유하는 자로서 새로운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윗글에서 설명한 니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할 때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진리로 인정받던 관점도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④ 사물과 그 사물을 지시하는 언어는 메타포를 통해 서로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 ⑤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여러 행위들은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 ②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므로 다수를 위한 진리가 필요하다.
- ③ 진리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진리를 파악하기 힘들다.
- ④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므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3. <보기>의 의견에 대해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물의 본질이 존재하고, 인간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돌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색깔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모두 돌이라는 객관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 또한 진리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생각이 같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삶에 유용하기도 하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자칫 허무주의로 이어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를 탐구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 ① '돌'이라는 개념은 동일하지 않은 대상들의 차이를 망각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②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삶에 대한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많은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일 뿐입니다.
- ④ 절대적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린 세계를 탐구할 수 있으므로 세계에 대한 탐구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 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더라도 여러 관점들의 경쟁 과정에서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므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4. 윗글에 나타난 니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철수와 철희는 학교의 화단에 심어 놓은 식물들을 보았다. 특정 식물에 대해, 철수는 색깔이 '빨갳다'라는 이유로 꽃이라고 하였고, 철희는 모양이 일반적인 꽃과 다르다는 이유로 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영희는 두 친구 민수와 민희가 '정직'한 행동을 하였다고 부모님께 말하였다. 부모님이 '정직'한 행동이 무엇인냐고 묻자, 영희는 '민수는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찾아 주었고, 민희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하였다.

- ① 철수와 철희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군.
- ② 영희가 두 친구에 대해 표현하는 말은 두 친구가 가진 객관적 성질을 나타내는군.
- ③ 영희는 '정직'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하고 민수와 민희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였군.
- ④ 철수가 식물에 대해 '빨갳다'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메타포가 사용되었겠군.
- ⑤ 영희가 두 친구의 다른 행동을 '정직'이라는 개념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메타포가 사용되었겠군.

[인문·예술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예술이다. 음악은 ‘음’을 시간 속에 조직하고 고정하는 예술로서 시간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에서 음의 연속과 휴지*는 모두 창작자에 의해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음악적 시간’은 리듬과 템포, 빨라지기와 느려지기, 음의 정지와 연주 등을 통해 시간의 진행이 조직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곡이란 음향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음악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에서 리듬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패턴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서양 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4~5세기의 단성부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의 경우 리듬은 기보*되지 않았고 오로지 가사의 흐름에 따르는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리듬은 규칙성이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성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12~13세기 초반에 비로소 리듬이 기보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이 사용되었다. 모드 리듬은 ‘짧다’ 또는 ‘길다’라는 상대적 시간을 표시한 것으로서 여섯 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모드 리듬은 모두 3분할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의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리듬의 본격적인 발전은 13세기 중엽 이후에 사용된 ㉡‘멘수라 기보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3세기 들어 다성 음악이 정교해지면서 모드 리듬의 한계가 드러났다. 모드 리듬은 획일적 정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 수에 맞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프랑코는 롱가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라는 기존의 4개의 기본 음표를 사용해 음가를 세분화하고 고정된 음가(音價)*를 표시했는데, 이러한 기보법으로 인해 각각의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음들의 관계 역시 3개를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완전하다고 인식되었다. 하나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를, 하나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일 때 ‘완전 분할’이라고 했으며, 결국 1개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와, 1개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

[A] 스와 각각 음가가 같았다. 단 롱가 두플렉스는 롱가의 길이의 두 배로 3분법의 기준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를 완전 분할로 간주하였다. 한편 3분할과 함께 2분할도 사용되었는데 이를 ‘불완전 분할’이라고 하였다.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비스가 뒤따를 때에는, 롱가가 브레비스 2개의 음가를 갖게 되었다. 또 롱가 사이에 2개의 브레비스가 올 때는 첫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브레비스의 음가는 첫 번째 브레비스 음가의 두 배가 되었다. 이때 롱가의 음가는 이 2개의 브레비스의 음가를 합친 것과 길이가 같았다. 또 브레비스 사이에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가 나타나면, 첫 번째 세미 브레비스의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frac{1}{3}$, 두 번째 세미 브레비스의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frac{2}{3}$ 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브레비스의 음가는 이 2개의 세미 브레비스의 음가를 합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멘수라 기보법은 160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들어 현재의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박절적 시간 구조, 즉 일정해진 박자에 의해 일정한 시간의 단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진행되는 시간 구조가 ㉢나타났다.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마디 줄은 일정한 시간의 주기적인 반복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곧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박자 안에는 고유한 강세가 있는데, 가령 $\frac{2}{4}, \frac{3}{4}, \frac{4}{4}$ 박자는 각각 ‘강-약’, ‘강-약-약’, ‘강-약-중강-약’의 강세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는 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되었으며, 전체 성부가 마디 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되면서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 또 자유로운 리듬일지라도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표현되어, 음악적 시간은 역동성, 긴장, 움직임 등과 같은 주관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8세기에는 $\frac{3}{4}, \frac{4}{4}$ 등의 박자가 나타내는 강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이스나 중간 성부에 8분 음표, 16분 음표와 같은 짧은 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20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구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음악에서 음악적 시간을 구체화하고 운동감을 드러내는 ‘템포’는 알레그로(Allegro), 모데라토(Moderato) 등의 악상 기호를 통해 각 작품마다 개성 있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악상 기호가 템포를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했다면, 메트로놈의 발명은 음악의 빠르기 표기를 숫자로 계량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음악의 템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1800년대 초반 멜첼에 의해 발전된 메트로놈은, ‘M.M.’으로 표기된 메트로놈 숫자를 통해 기준이 되는 박의 음표, 일반적으로 4분 음표(♩)가 1분에 몇 번 나오는지를 ‘♩=90’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음악의 템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즉 템포가 빠른 음악일수록 M.M.이 커지고, 템포가 느린 음악일수록 M.M.이 작아진다. 메트로놈은 처음에는 50~160까지 눈금이 매겨진 것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40~208까지 세분화된 것이 표준 규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음악의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음악 연주에서 특정한 템포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적 시간은 점차 음악을 구성하는 각 음의 객관적, 물리적 시간을 정교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시간 개념은 결국 음악을 감상하

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 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휴지: 조음(調音)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단성부 음악: 화성이나 대위법적인 요소가 없이 하나의 성부로만 이루어진 음악.

*기보: 악보를 기록함.

*음가: 음표나 쉼표가 나타내는 음의 길이.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의 리듬이 템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음악적 시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열거한 후 이를 통합하고 있다.
- ③ '음악적 시간'이 발전하는 과정을 동시에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음악에서 리듬과 템포가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⑤ '음악적 시간'을 체험하는 방법을 분류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과 템포는 음악 작품이 진행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 ② '음악적 시간'은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성 음악의 정교화는 음악의 리듬이 음절적으로 세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13세기 이전까지의 다성 음악에는 엄격한 정형의 박절적 시간 구조가 사용되었다.
- ⑤ 현재 사용되는 메트로놈은 초기의 메트로놈에 비해 더 빠른 템포까지 나타낼 수 있다.

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음악 작품을 구성하는 리듬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 ② ㉠은 ㉡과 달리 각 음이 연주되는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구분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하나의 음악 작품을 하나의 시간적 척도로 통일하였다.
- ④ ㉡은 ㉠과 달리 음악에 사용된 각각의 음이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 ⑤ ㉠과 ㉡은 모두 음의 길이와 높낮이를 3가지로 분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멘수라 기보법으로 표기된 리듬 '■ ■ ■ ■ ■'은 룡가 사이에 3개의 브레비스가 있으므로 완전 분할된 리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현대 음악의 음표로 표시하면, 룡가 하나는 브레비스 3개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브레비스를 현대 음악의 1박을 의미하는 '♪'로 표시한다면, 룡가는 3박인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 ■ ■ ■ ■'은 현대 음악의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멘수라 기보법으로 표기된 리듬 '■ ■ ■ ■ ■'은 앞뒤에 있는 룡가의 음가는 서로 같지만, 불완전 분할이므로 첫 번째 브레비스의 길이를 '♪'로 표시한다면 '■ ■ ■ ■ ■'을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Moderato ♩ = 152

p

<쇼팽, Valse, Op. 69 No. 2(1829)>

- ① '♩=152'는 1분에 4분 음표 152개가 나타나는 템포로 연주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 ② '3/4'을 통해, 첫마디를 제외한 악곡 전체가 동일한 박자로 통일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Moderato'라는 악상 기호를 활용하여 템포를 지시함으로써 악곡의 개성을 드러낸다.
- ④ 위 성부에서는 리듬의 규칙적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아 음악적 시간의 역동성이 나타난다.
- ⑤ 아래 성부에서는 마디마다 동일한 음가를 가진 음표가 반복되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갑자기 큰 차량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 ② 그의 생각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었다.
- ③ 체험자들의 얼굴에 피로가 나타나고 있었다.
- ④ 물건을 대신할 교환 수단으로 화폐가 나타났다.
- ⑤ 불안 심리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문·예술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항로 개척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응집성 있는 세계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신항로 개척에서 유럽의 해양 세력은 세계 각지의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각 문명의 물질적·정신적 성취물들이 활기차게 충돌하고 교류하였다. 파괴와 갱신, 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대 세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있었다.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양 권역은 인도양과 지중해였다. 오랫동안 인도와 아랍, 동아시아 등 주요 해양 세력들의 무대는 인도양이었고 문화·종교·언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교역을 하였다. 또한 유럽 내부로 보면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교역의 중심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권역의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해양 권역의 중심은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서양 권역의 국가들은 대서양을 기점으로 하여 인도양과 지중해, 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점차 넓혀 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대서양 중심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러 문명은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권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슬람은 충분히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명나라 시대 정화의 원정같이 원양 항해 능력을 보여 주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를 체계화하여 지속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15세기 이전의 항해는 가능한 한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문명은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다. 문명 간의 해양 경계는 대륙의 경계만큼이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바다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유럽의 항해 기술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브로델은 유럽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해양 권역으로의 모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중국 같은 문명은 자기 세력 내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하였고 더 넓은 세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 있던 유럽은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실하게 해양으로의 진출을 시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신흥 상인 계층이 뒷받침하여 이루어진 대

형 사업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은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륙으로 진출한 유럽 세력들은 모두 유례를 찾기 힘든 가공할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서양에 접한 대륙들은 소위 유럽식의 혁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로 융합되어 갔다.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에 따른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유럽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럽의 세력 확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항해술의 발달이 이후의 모든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기술 결정론이나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 중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구의 모든 문명이 바다를 통해 만나게 되고 충돌과 갈등, 이해와 교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메이닝은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한 것보다 훨씬 광대한 상호 작용의 현상이라고 말하였다. 대서양 진출을 유럽의 신세계 발견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변형시키고 나뉘어 있던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문명권 간의 거친 만남으로 본 것이다.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첫 모습은 분명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위계질서가 가득하였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모습 속에서도 각 문명 상호 간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5세기 이전의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등은 서로 소통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존재하였다.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내륙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으며 아시아 또한 실제적인 정보보다는 막연한 환상과 유언비어로 채색된 곳이었다.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은 그 존재조차도 인식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각 대륙이 바다를 통해 연결된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파괴적 폭력과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동반된 것이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유럽에서 시작된 해양 진출 시도가 다른 문명권으로 퍼지게 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문명이 바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해양 진출과 민간 주도의 해양 진출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로 개척 정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항해는 스페인 여왕인 이사벨 1세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스페인은 지중해 무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밀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옆 나라인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항로를 개척해서 많은 부를 챙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사벨 1세에게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콜럼버스의 제안은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성공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신대륙 도착 이후 행동을 보아도 콜럼버스의 목적이 새로운 지리적 발견이 아니라 경제적인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신대륙으로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금이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원주민들을 사로잡아 노예 시장에 파는 등 탐험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행동을 반복하였다. 결과적으로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가져온 설탕과 은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① 콜럼버스의 항해는 유럽의 영향력이 인도양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의 항해를 도운 것은 지중해에서의 무역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 ③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한 행동들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스페인이 신대륙 발견 이후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국 내의 시장 확대에 경제적 충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 ⑤ 콜럼버스가 개척 정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이유는 유럽과 신대륙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3.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명 간에 고정되어 있던 해양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유럽의 교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 권역의 국가들로 이동하게 되었다.
- ③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④ 유럽은 다른 문명에 비해 독보적인 항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였다.
- ⑤ 유럽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 있어서 생긴 경제적인 요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새로운 지역의 발견을 통해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 ②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파괴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문명 간의 갈등을 계속 확대시켰기 때문에
- ③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중국이나 이슬람 등 다른 문명권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 ④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문명 상호 간의 영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 ⑤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다른 문명권과의 문화·종교·언어 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5. <보기>는 ㉡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이다. <보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은 신대륙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유럽의 해외 팽창은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었고 종교적 신념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주도의 종교 전파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신대륙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의 경우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이 동반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현재는 유럽을 능가하는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의 기독교와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뭇 다르다.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들은 강제로 개종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원래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신앙에 새로운 종교 체계가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① 유럽의 종교가 신대륙에 널리 전파된 과정은 근대 이전 인도양 권역의 교류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군.
- ② 유럽의 해외 팽창이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다는 것은 유럽의 해외 진출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이군.
- ③ 유럽이 새로운 지역에 적극적으로 종교를 전파한 것은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의 국가적 목표를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군.
- ④ 중남미 지역에 전파된 기독교가 기존의 종교와 결합하는 모습은 일방적인 폭력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군.
- ⑤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은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군.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